朝鮮日報
朝刊

社說

蔣介石氏의 親日演說

그 推移를 注目함

一

蔣介石氏가 十六日의 五全大會에서 親日演說을 한것은 各界에 多大한 衝動을 주엇다。幣制改革을 機會로 親英排日을 하려니、또는 北中政權運動을 契機로 聯蘇容共策을 쓰려니 하야 揣摩臆測이 紛紛히 떠돌아 日中間에 干戈의 相交할 날이 目睫間에 迫到하엿거니 하든 此際에 蔣介石氏가 突然 親日的演說을 햇다는것은 一大意外라 안흘수 업슬것이다。兩者 中國의 입이라、表面 外交的으로 親日을 標榜하고 內面 亦是 抗日을 標榜할 計策이지도 모르거니와 蔣氏가 公公然히 如斯한 親日外交를 强調한 裏面에는 그러케할만한 根據가 잇는것을 생각할수가 잇다。

二

첫재 中國의 情勢가 排日을 不許하는것이다。過去 數十個月에 亘한 天津、大連、上海會議의 決議며 北中政權運動이 中國의 絶對 重大問題임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廣田外相이 蔣作賓大使에게 提議한 三個의 積極的條項 即 (一)滿洲國承認、(二)經濟提携 (三)日中合力에 依한 討共工作等에 對해서는 應否中 어떤것이든지를 回示치 아니치 못할 境地에 잇다。萬一 이것을 拒絶한다하면 곳 敵對行動을 하겟다는것과 마찬가지니 現下 中國에 武力的對抗實力이 업는것은 누구나 共認하는바다。어찌 公公然히 排日을 宣言하리오。

둘재는 國內的으로 民心을 收拾한것이다。北中時局의 重大한 것을 論하야 蔣氏는 馮玉祥氏와 閻錫山氏와의 懷柔에 成功하고 西南派에 對해서도 여러가지 讓步를 斷行하야 五全大會에 出席케하엿다。이리하면 蔣氏가 表面 어떤 말을 만해도 默認하게쯤되엿다。

그리고 最後로 아것을 自信잇게 한것은 汪兆銘氏의 遭難이다。汪氏의 遭難當時 國府要人은 勿論이어니와 六中全會에 參席한 모든 사람은 汪氏의遭難을 同情하고 同時에 汪氏의 親日外交에 對해서도 反對할 勇氣를 減殺하얏다。이리하야 蔣氏는 演說中에 이 點을 强調하야 反對派로 하야금 一言을 發치 못하게하얏다。

三

그러나 親日을 標榜햇다고 그 具體的 方法을 어찌할가는 問題다。幣制改革부터도 日本을 돌려노코한 排日的 行動이라 하야 日本으로부터 批難을 밧거든 하물며 廣田外相이 提議한 積極的 三條項을 다듯자니 一部의 反蔣派로부터 賣國的이란 罵倒를 밧는 今日、重大한 冒險을 敢行하지 안흘수업다。蔣氏는 結局 馮、閻、胡等 諸反蔣派를 懷柔하야 共同責任政府를 組織하고 實際政局에 다닥치게 하야 그 곳에서 妥協點을 發見하고 그리고 實際的 對日策을 樹立할것이 아닐가。

이리하야 南部를 切棄하고、南陵를 切斷하고 制覇만 남엇다가 最後의 一戰을 試하겟다는 蔣介石氏의 持久主義가 結局 …

對中經濟援助의 英國提案을 一蹴

外務、陸軍、大藏及民間有力者協議結果

有吉大使不日回答

카드간駐中英大使

【東京電話電通】中國幣制改革及 이에 關聯되는 對中共同借款에 關하야 英國側 레이드·로스特使及 카드간駐中英大使는 日本政府에 援助를 要請하고 去十五日에는 有吉大使를 通하야 다시 考慮를 促해왓는데 이에 對하야 廣田外相은 考慮할 餘地가 업다고 斷乎 이것을 拒否하기로 決定하얏다 即 去十五日 레이드·로스特使及카드간大使는 有吉大使를 訪問하고 幣制改革에 依한 中國의 通貨를 安定케하고 따라서 日本의 對中貿易에도 好影響을 及할것은 明白하므로 日本에서도 同案의 遂行에 援助해주기 바란다 同案의 實施에는 借款이 必要하기때문에 英國으로서는 이것을 應諾할意向을 가젓는데 日本도 借款에 協力해주기 바란다고 日本의 援助協力을 要望해왓스므로 外務省에서는 從來 陸軍、大藏兩省을 爲始하야 民間關係者와도 愼重히 協議한結果 借款及 今回의 幣制改革案은 참으로中國의 經濟恢復에 資하는바 아니라는 結論에 到達하야 十六日 有吉大使에게 訓令을 發해서 英國案의 提案에 回答을 發하도록 指示한바잇섯다 即 有吉大使는 近日中에 英國側에 回答할것으로 信據되는데 그回答趣旨는 如左하다

一、今回의 幣制改革案은 부질업시 中國內部의 政治的紛糾를 助長케할뿐아니라 現銀의 中央集中은 地方經濟를萎縮케하야 經濟恢復을 阻害하는것이므로 日本으로서는 賛成할수업다

一、借款은 中國國民에게 將來의 負擔을 加重하고 財政整理를 困難케할뿐아니라 부질업시 一部要人의 政治的野心策動에 益하는것뿐이오 中國에 安定을 阻害하는것이므로 日本으로서는 反對이다

形式上中央主權下 事實上自主的行動

河北、山東、察哈爾、綏遠、山西等

五省聯盟組織內容

【北平十八日發聯合】河北 山東 察哈爾 綏遠及 山西五省은 自治政府를 樹立하야 事實上 國民政府의 統治에서 離脫하기로 決定하엿는데 新聯盟의 組織內容은 如左하다고 確聞된다

一、河北 山東 察哈爾 綏遠 山西 五省政府의 自治聯盟을 結成하야 省政府는 現行대로 存續하고 自由制度下에 五省聯携를 圖함

一、政治外交에잇서서는 西南政務委員會에 倣하야 表面上 國民政府에 對한 地方 機關인 地位를 維持하면서 事實上自立으로 行動함

一、五省自治聯盟委員은 河北實權者要人 在野六老를 網羅함

一、五省自治聯盟에 內政、外交、財政、軍事、司法、產業 鐵道의 九部門을 置함

一、財政金融上에 잇서서는 中央政府의 統治로부터 離脫하고 海關收入을 爲始하야 鹽稅統稅等의 收入全部를 留保하야 北中民衆의 福祉增進을 圖함

自衛會組織大綱

【北平十八日發電通】北平市商會及 各方面의 有力團體代表者로 組織된 華北地方 自衛會는 十八日 自衛宣言을 發하야 北平과 北中一帶에 發佈하고 드되어 積極的 行動을 開始 하다 同會의 組織大綱은 如左하다

一、本會는 中日親善에 努力하고 經濟提携의 促進、地方自治倡導과 地方自衛를 期함으로써 主旨로함

二、本會에 會長、副會長各一名 顧問若干名을 置하고 總務、交際、經濟、地方、調查、宣傳 文化、衛生의 各部를 設함

三、會員二名以上의 紹介가 잇는者는 會員이될을 得함

그리고 同會가 發한 自衛宣言의 大要는 如左하다

歐洲의 風雲이 急하야 東亞 方面은 兵을 求하지안코는 東亞의 安寧을 保持할수업다 또華北의 情勢는 나날이 緊迫 重大하다 政府 그實을 [illegible] 하다하나 華北國民으로서 自覺 두기 [illegible] 吾人同志로부터 [illegible] 러는者이다 自衛치안흐면 [illegible] 本能을 組織하야 華北으 [illegible] 安寧을 圖하 [illegible]

五全大會와◇◇◇ 南京政權의 將來

④ 李元坤

憲法問題 ◇

蔣介石氏의 北伐成功後 武漢派와의 妥協이 成立되여 一九二九年 三月 十日부터 九日間 南京에서 열리엇든 第三次全國代表大會는 國民革命의 第一段階인 軍政期의 終了를 告하고 訓政期에로의 移行을 宣言하야 一九三五年 六月까지의 六個年間을 訓政期로 決定하고 同七月부터 憲政期에 드러간다는것을 約束하엿다 訓政期는 訓政綱領에 明示된바와 가티 「訓政期間에 잇서서는 國民黨 全國代表大會가 國民大會를 代表하야 國民을 領導하고 政權을 行使한다」하야 國民大會 召集을 豫約하고 「訓政期間에잇서 國民에게 政治的 訓練을 實施하야 立憲民主政治의 基礎를 確立」하는 期間을 指稱하는것이다

即 國民大會는 民主政治의 最高代議機關이므로 六個年(昨年間)의 訓政期를 脫出하야 憲政에 入할 第一段의 課題로 憲法 草案을 最終的으로 審議通過할 任命을 띄고잇다。그리므로 지난 十三日부터 開催되고 十五日부터 本會議에 入한 五全大會가 順調로 進行하여 마친내 國民大會召集이 實現된다고하면 「國民大會는 國民黨 全國代表大會로부터 一切의 權利를 繼承하야 國民을 領導하고 政權을 行使」하게되므로 國民黨의 獨制政權은 여기서 完全히 解消되고 中國全土에는 爾來의 過渡期的 形態를 버서나 立憲民主政體가 實現되여 現代國家로서의 面目을 具全하게될것이다。

◇

全國代表大會는 國民黨의 最高權力機關인만큼 自然黨의 最高政策이 그中心議題가될것이다。特히 今回의 五全大會는 憲法을 公布하야 憲政完成의 新時代를 樹立할 劃期的會合임으로 그 中心議題는 憲法問題를 비롯하야 國民大會召集、國民黨總章修正問題、共產軍討伐問題、北中問題、外交問題、特히 對日外交問題、財政問題等 目下 國民政府가 直面하고잇는 對內對外의 重要問題가 討論 되리라고 推想된다。即 國民大會의 召集은 憲法制定을 前提로 하는만큼 國民大會의 召集期日과 同大會에 上程하야 最終的 審議를 求할 憲法草案의 審議가 第一議案이 될것이며 따라 憲法實施에 伴하는 國民黨의 地位와 및政府와의 關係를 規定할 必要에서 생기는 國民黨總章의 修正問題도 必須條件으로 따르게된다。其外에 共匪討伐問題、外交問題、北中問題、邊疆問題、財政問題 모도 國民政府의 施政方針等에 關하는 問題임으로 今回의 五全大會에는 大體로 原則問題만을 討論하고 細目에드러서는 政府와밋中央政府會議로 미루리라고 豫想되나 그러나 爾來 反中央的 態度를 取하여오든 西南派의 代表와 北中將領의 一部가 一堂에 모인 만큼 後者에 잇서서도 相當한 議論이 잇슬것은 推測하기 容易한일이다

◇

먼저 五全大會에 附議키로된 憲法草案에 對하야 一瞥키로하자 國民政府立法院은 五中全會議의 決議(速히 憲法을 起草하야 國民의檢討下에 國民大會를 召集하고 發表期日을 決定하라)에 依하야 一九三三年一月부터 吳經熊、焦易堂、傅秉常、馬寅初、陳肇英等 三十餘名의 一流法學者를 網羅하야 憲法起草委員를 組織하고 그起草에 着手하야 同年六月에 第一次草案의 脫稿를보게되여 卽時 全國의 有名한 新聞에 發表하야 一般의 批判을 求하여온바 各方面으로부터 反對意見을 맛나게되여 다시 修正案起草에着手하야 屢次 追稿를 加한結果 마친내 最終案을 엇게되엿다 右修正案은 五全大會에 附議할 正案으로 이미 立法院의 三讀會를 通過한것인데 全文八章 九節 一百五十條로 構成되엿다 第一次草案에잇서서는 中央政府를 責任內閣制로하고 總統은 對外的으로 國家를 代表할뿐으로 何等實權을 賦與하지안코 今日의 主席을 踏襲하고 總統이라고 改稱한데 不過하나 今回의 五全大會에 附議할 修正案은 責任內閣制를 排擊하고 總統制를 復活하야 「總統은 國家의 元首로 對外로는 中華民國을 代表하고 法에依하야 法律及命令을 發布하되 關係各院院長의 副署를 要하며 總統은 全國陸海空軍을 統率하며 法에 依하야 宣戰、媾和及條約을 締結하는 權利를 行使하며 法에 依하야 戒嚴令과 解嚴令을 發布하며 大赦、特赦、減刑、復權、文武官의 任免權이 有함」(憲法草案修正案 第四章 第一節第三十六條로부터 第四十二條까지 - 以上申報 中華民國 二十四年拾月二十八日附에依함)이라고 明示되여잇다 即 이條項을 一瞥하면 얼마나 大總統의 權限이 强大하다는것을 察知할수잇다 더욱이 右草案이 現南京政府立法院에서 任命한 起草委員이 起草한만큼 現南京政權의 現狀그대로 反映되엿다고 볼수밧게업는 事實이다 特히 總統制復活條項에 잇서서 總統의 權限을 擴大强化한것은 어데까지 現在의 蔣介石政權의 存續을 眼中에 너흔것이 看破됨으로 爾來 蔣氏의 獨制政權에 不滿하는 西南派를 비롯하야 反蔣派가 果然 現南京政權의 擴大强化를 意味하는것과 가튼 條項에 贊同할는지 萬一 異論이 續出한다고하면 現中央政府派는 如何한 手法으로 異流를 懷柔할는지 憲法問題에 對해서 一般人의 注目은 바야흐로 그 焦點에 集注되여잇다

蔣介石氏結局 北中新政權默認?

【北平十八日發聯合】北中國自治工作에 對하야 蔣介石氏는 中央軍의 精銳를 河南省에 集結 武力壓迫의 氣勢를 示하고잇스나 事實은 그러치안코 一流의 政治的洞察에 基하야 大勢의 歸趨를 看取하고 北中國의 經濟破局을 未然에 阻止하야 赤化의 東南를 防衛함에는 宋哲元氏以下 北中國實力派의 新政權을 支持하는外에 他道가업다고 看破한듯하다 察哈爾省主席 蕭振瀛氏의 談話及 確實한 方面에의 情報에依하면 蔣介石氏는 新政權默認에 方針을 決定하고 右意向을 極秘裡에 宋哲元氏 蕭振瀛氏等에 傳하엿다하는대 商震氏가 最後의 手段으로 自治工作에 斷乎參加를 決意한것도 以上의 蔣介石氏의 方針을 諒察한 結果라고 보인다

海軍軍縮會議 成功은絶望

【東京電話電通】十六日에 出發한 日本軍縮全權은 十二月一日倫敦에 到着할 豫定인데 全世界注視의 軍縮會議는 各國全權의 到着을待하야 十二月六日부터 倫敦에서 日、英、米、佛、伊의 五强國會議下에 [illegible]

▲日本 比率主義의 撤廢、總噸數主義에 依한 最高共通限度의 設定 乃至 主力艦、航空母艦의 全廢乃至 徹底的縮減

▲英吉利 艦種別或은 總噸數比例制 海軍軍備宣言案及 質的制限(主力艦二萬五千噸、巡洋艦七千噸)의 併用 潛水艦의 全廢

▲亞米利加 現行比率主義의 保持 軍艦噸數의 縮減 反對、潛水艦의 全廢

▲佛蘭西 總噸數主義 及 英國의 質的制限方式支持

▲伊太利 對佛均等 英國의 方式은 大體承認、地中海上 特定地域의 中立化

이와가티 各國의 主張은 相當한 間隙이잇슴으로 會議의 成功은 거이 期待할수업다 英國으로서는 大陸諸國만이라도 何等의 協定을 締結을 지으려고 努力할것이나 何如튼 倫敦、華府兩條約의 失效는 確定的으로 一九三七年以降의 無條約狀態는 必須라 할것인바 這間에 處할外交工作에 專혀 期待를 가지게되여잇다

蔣、陳齊棠氏懷柔

【廣東十七日發聯合】蔣介石氏는 陳齊棠氏 懷柔條件으로 福建省南部의 地盤을 陳齊棠氏에게 讓渡하기로 決定하고 十六日附로써 陳氏에對하야 左의 要旨를 通達하엿다

福建駐屯中央軍、二十個師는 河北을 防衛하기爲하야 이미 北에 出動하야 福建省內에는 겨우 數個師를 남겨잇슬뿐이다 따라 貴下는 軍을 南部으로 參駐하야 防衛를 擔當하라

夕刊後市況 十八日

◆東京短期◆ (後引 高値 安値)
東新 一六九五〇 一七〇〇〇 一六八五〇
日產 八三二〇 八三九〇 八一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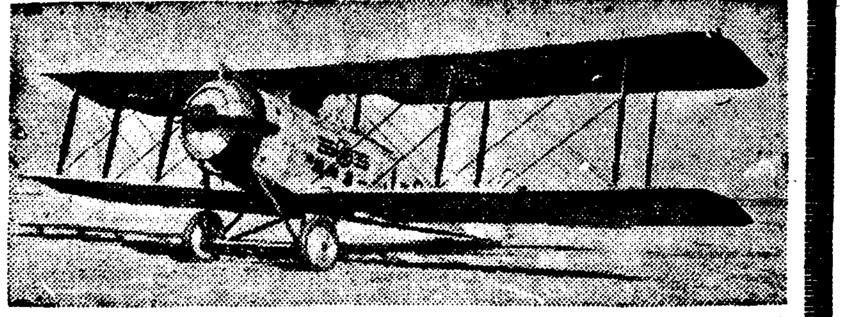
◆大阪短期氣配◆
大新 一〇一〇〇 (三〇高)
鐘新 一四六五〇 (二〇高)
日產 八二二〇 (不變)
東新 一六九四〇 (一一〇高)

◆橫濱生糸後引◆
當限九四三〇〇 先限九一八〇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六一五〇 先限六一二〇

本報空中輸送試驗飛行

第二次로湖南及關北에



本社가 新築落成等 三大慶事를 機會로 十五大事業을 發表할때에 新聞紙의 空中輸送試驗飛行을 實施할것을 公約하고 지난十月 大邱、平壤、新義州等 嶺南、關西의 三大都市밋 그 隣接都市에 本報를 空輸하야 當日 午後 京城市內에서 보는 同時刻에 該地方讀者로 하야금 보게하야 多大한 衝動을 이르킨것은 讀者의 기피 記憶하는바다。本社는 이에 남어지 코-스를 단숨에 實行코저 下記 日時로 湖南의 要地 裡里、榮山浦와 關北의中心 咸興에 本紙를 空輸하야 當地及 그 隣接地인 全州、群山、木浦、羅州、元山等地의 讀者에게 最新뉴쓰를 보내어 報道機關으로서의 使命을 다하랴한다。本社의 이第二次空輸計畫은 第一次의 그것과 아울러 우리 新聞史上에 劃時期的 事實이될것을 自任하거니와 滿天下讀者께서 本社의 微衷을 諒解하신다면 萬幸으로 여기는바이다

操縱士 一等飛行士 二等航空士 愼鏞頊

使用機 살무송 A 二型 本社機

日程

十一月廿二日 午後一時 京城發
同 午後二時廿分 裡里着
同 午後三時 同所發
同 午後四時廿分 榮山浦着
十一月廿三日 午前九時 同所發
同 正午 京城着
十一月廿五日 午後一時 京城發
同 午後三時卅分 咸興着
十一月廿六日 午前九時 同所發
同 午前十一時 京城着

朝鮮日報社

十萬精銳引率코 中央軍北上乎

蔣氏의 北中武力的彈壓決意로

日本駐屯軍極度緊張

【天津十八日發聯合】北中自治宣言에 前後하야 蔣介石氏는 中央軍의 精銳十萬을 北上케하야 五全大會終了를 기다려 武力彈壓을 强行할 氣味를 보이고잇는데 蔣介石氏가 民心의 歸趨를 無視하고 武力彈壓을 할 境遇에는 北中民衆의 福祉安寧이 毁損될뿐아니라 在留日本人의 權益도 重大影響을 受할 念慮가 잇스므로 中國駐屯軍當局은 東京과 緊密한 連絡下에 義和團議定書와 塘沽停戰協定의 堅持에 萬遺憾업기를 期하고 靜觀裡에 極度의 緊張을 示하고잇다

埃及의 暴動

더욱重大된形勢

【카이로十六日發電通】埃及의 暴動은 十六日에이르러 마침내 카이로以外의 都市로 飛火되여 警官隊와衝突하야 十六日에도 死者一名을내여 去十三日暴動勃發以來通計는六名에 達하엿다

一事一言

猝寒에 생각히는것

白山人

例에업시 溫和하던 今年日氣는 例에 업시 猝寒이 되엇다。벌서 兒童間에는 肺炎으로 變하기쉬운 惡性의 感氣가 流行한다 하거니와 窮民의 만흔 朝鮮의 各大都市에는 不充分한 設 [illegible]

市內典當舖五六處 拳銃襲擊을自白

本町署取調中의黃永壽는 "나는奉天"으로確定

귀보=『나는 봉천(奉天)!』의 유력한 혐의자를 붓들고 권총(拳銃)한자루와 실탄다섯발까지 압수하여 노앗스나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지안코 게다가 범행당시의 물적증거가 업서서 진부(眞否)의 속단을 내리지못한 차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마럿든바 지난십륙일밤에 피의자 황영수(黃永洙)(變名黃壽山、黃小伊)는 삼년전의 범죄전부를 자백하고 그동안 세상을 소란하게 만든데 미안하다는 말과 관대한 처벌을 해주기바란다고 눈물을 흘니며 취조하는 형사의 옷자락을 붓들고 떨고잇섯다 그자백한중 나온 사실은 다음과갓다 일은 사변전인 소화칠년으로 넘어간다 사월이십삼일 저녁여덜시쯤 시내청진동(淸進洞) 전당사전당포(一○社典當舖)에 상서세가량되여 보이고 키가 중키고 얼굴이 동글면서 아릿다이조냥치한 양복에 목이가는데다 작업복(作業服)을 입고 가장한 괴한이 나타나 권총을 겨누고 금고속에든 돈일백오십사원을 강탈한 사건이 잇슨 그전 략이십분에는 시내 락원동(樂園洞) 산본(山本)전당포에서 고객으로 가장한 권총청년에게 또 그보다도 수일압서서는 『빠고다공원』뒤골목 천긔(川崎)전당포에서 또 십이월초순에는 서대문밧 교남동(橋南洞) 칠십사번지 영화사(永華社)전당포에서 벙어리로 가장한 권총범에게 각각 금품을 강탈당하엿고 또 십이월 중순에는 장사동(長沙洞)에 잇는 토관(土管)창사모를 권총으로 협박하야 금시계한개와 현금 얼마를 빼아서가는등 불과 한달동안에 경성시내를 제마음껏 노리고 도라단인 대담한 강도광이나이라고 소상한 전후 범죄사실을 자백하엿다 이 피의자 황영수의 자백을 바든 본정서에서는 취조를 대략 끗마치고 오즉 물적증거만을 맹렬히 수사하고잇다

이로서 사건이 일단락을 지엿스므로 최후의 수일간을 기다려 전부의 단안이 나릴것으로 그동안의 진전여부가 크게 흥미를 끌고잇다

死刑四二十名等 間共公判은언제?

勾留期日만更新하고잇슬뿐 어떠면越年하게될듯

죄고총수 이백륙십일명중에서 무죄는겨우 열여섯명이요 사형이십이명 무기중역 다섯명을내인 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사건은 소화팔년 십이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일심판결이 잇서가지고 사형판결받은자 전부와 무기중역받든자 일부가 공소를하지 만이개년에 그동안 구류개신만 거듭하며 공판은 어느세월에 열릴런지몰라 세상에서는 그들을 도둑뿐인데 금년도 아프로 한달을 남깃이 남지이때에 과연그공판이 년말안에 열릴수잇느냐 하는것은 사건담당의 경성복심법원측에서도 단언을 하지못하고잇서 자칫하면 또다시 이한해를 묵히게 될는지도모른다 그리고 사형판결바든 수울두명 가운데 최창호(崔昌鎬)、리성혁(李星赫)의 두명은 공소공판은 보지도못하고 이미 옥사를 하엿스며 십오년언도의 방봉현(朴鳳鉉)과 십이년언도의 조희운(曹喜雲) 안동희(安東熙)의 세명은 그뒤에 공소를 취하하야 다음의 스물여섯명만이 새로운 공판을 기다리고잇다

(死刑) ▲周現甲▲李東鮮▲金光默▲高河鎬▲金應洙▲金鳳國▲金東弼▲朴金哲▲崔泰山▲劉泰順▲許玩珍▲盧昌浩▲朴東弼▲朴翼燮▲池運浩▲閔昌植▲崔粟律▲金龍磯▲李鋼立▲金今南 (無期) ▲金成洙▲車炳喆▲安應孫 (十五年) ▲元谷學▲李昌鎬 (十三年) ▲朴仁煥

朱鎭圻君特志

【金海】 이생명이라는 깨다려아래서 김해군주촌면 내삼리(酒村面內三里)에서는 무산아동이 배움곳이업서 헤매이든바 동리 장병수(張炳綬)씨의 솔선으로 작년사월부터 야학회를 설립하엿스나 여러가지 경비곤난으로 중단되엿든바 동리에 주진긔(朱鎭圻)군의 특지로서 동야학을 지도하게되여 야학생은 근일에는 칠십오명에 달하는바 일반은 주군의 성의에 감탄한다고 한다

土木談合事件 駒井、上告棄却

이심에서부터 분리된 토목담합사건(土木談合事件)의 전경성부 토목과 영선계(營繕係)주임 구정덕삼랑(駒井德三郎)의 수회(受賄)죄에관한 상고공판은 십팔일 오전 고등법원에서 협(協)재판장담임 옥명(玉名)검사립회로 개정되어 재판장으로부터 상고기각을 언도하엿다 그리하야 피고구정은 이심대로 징역일년、추징금이천삼백륙십오원으로 형이확정되엿다

亂脈의片倉農場 無關係者에假差押

前年의高率로매인水料를强徵中 小作人側의非難滋甚

【黃州】 귀보황해도황주읍례동리(黃州邑禮洞里)에 사무소를둔 편창식산 주식회사 황주농장(片倉殖産株式會社 黃州農場)이라면 일반소작인들의 원망이놉다 작구년가을이래 금춘까지 사회의 비난을바드며 문제를 이르켯든 전대미문의 고률의 신수료부과(新水料賦課)문제로 일시 세상을 소동식혓고 그후 동농장에는 내부조직에까지 귀결을 보앗든지 최고 간부사이에 반목질시 고소등 분요를 이르키며 모간부는 륭지장신세까지 지며 두차례나 간부가 밧귀엇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간평(看坪)시에 부정척(不正尺)을 사용하야 륙변간이란 작구한동안이나 우하고 일반사회에서 일대마굴(魔窟)이라고 비난을바더오든바 금번은 다시 전연무고한 동농장과 아모관계도 업는사람에게 차압을 단행하엿다가 엇절줄을 모르고 떨고잇다는 뜻기에도 면시할만한 추행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엿다 그경과를 듯건대 작년가을 재래에 업든 턱문이도 업는 고률(高率)의 수료(水料)를 부과시켯슴에 대하야 당시 동회사소속 소작인 일반은 수료전폐의 긔시발을 들고 이러나 문제를 이르키어 엇절수업는 농장당국으로서는 당시 그저 유야무야하게 무더버리고마럿든 문제의 수료를 다시금 징수코저 수료체납이란 리유로 일반작인에게 속속 가차압을 단행하고 잇는중 공교롭게도 황주읍 례동리 소작인 리성옥(李成郁假名)에게 가차압한다는것이 동리에는 동성동명의 전과편창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업는 딴사람이 잇는것을 상세조사치도안코 편창당국에서는 집달리를 다리고 주인도업슴에도 불구하고 가차압을 단행하고도라갓다 당시현장에서는 리성옥의 처박씨가 가차압을 당할 하등의 리유가업다고 백방으로 변명하엿스나 종시듯지안홈에 임산중인 박씨는 실신졸도하야 응급수당을밧고 겨우소생하엿다는바 상사까지 이러낫다는바 려행중에잇다가 도라와 이것을 알게되리성옥은 극도로 분개하야 목하그대책을 강구중인데 회사당국에서도 황망하야 엇절줄을모르고 백배사례하는등 추태를나타내이고잇다

精神病者打殺犯 五名檢局送致

【靈岩】 귀보=지난 십월이십오일밤 열두시경에 령암군 서호면 소산리에서 정신병자 김경률(金京律)(二○)을 타살한 가해자 김두수(金斗洙)외 다섯명이 이래 령암서 사법계에서 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동안 취조를 전부 마치고 지난 십일일에 전긔 김두수외 다섯명을 공모상해치사죄로 일건서류와함께 장흥(長興)검사분국으로 송국하엿다고한다

鴨綠江沿岸結氷

요사이 일긔가 몹시치워서 경성에도 일은아츰이면 엷은어름이 얼기시작하는터이지만 압록강연안의 추이는 예년에지지안는 혹한으로 벌서 지난 구일에도 혜산진(惠山)군 일대의 압록강연안은 결빙되기 시작하엿다한다 작년도에도 십일월구일부터 결빙이 시작되엿스나 압록강연안의 결빙은 작금량년이 시기를갓치하엿다고 볼수잇는데 여하튼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엿다고볼수잇다

洗濯場設備不備를糾彈

◇十八日府會에서

새로된 공설세탁장(公設洗濯場)의 사용조례(使用條例)의 설정과 부외 아현리(阿峴里) 공덕리(孔德里)의 급수문제등을 토의하기위한 경성부회(京城府會)는 십팔일 오후두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열리엇다 벽두에 공설세탁장 사용조례 설정문제가 상정되여 모처럼에는 세탁장이 좌석이좁고 도랑티를 삼는가마의 연돌이 나자서 재가 날린다는것과 수질이 나뻐서 비누가마하히 해진다는등 비난의소리가 잇섯스나 결국통과되엿고 예산추가안중에서 내달십일에 거행할 부민관(府民館)낙성식비용으로 이천원과그 여흥공원비로 사천구백사십구원 기타잡비용 이백십원 합계칠천이백구원을 계상한데대하야 비용이과하다는것과 도상연하는 연예가 시내의 기생예기의 춤이라는데 통과를가지고 여러번신랄한 진론이잇섯스나 흐지부지 무마되고 통과되엿다 그밧게 부외급수및 부유토지와 민유토지의 교환문제등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오후여섯시경에 폐회햇다한다

자수면과 전지에 제신국관리를 다니다는 신사의 좌명을 하나자들이 어울려서 마장(麻雀)도박을하다가 소관경찰서 석무형사에게 발견되여 김재식(金載植)(二○)─변명─등다섯명이 검속되고말엇는데 그들은그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하던 일당이라한다

珍島赤色事件 十九日에公判

【珍島】 전남도경찰서에서 작년구월부터 검거한적색사건은 금년이월오일에 고군면세등리곽재필(郭在必)진도면동외리 ... 진도면 장정리조규선(曺圭先) ... 사명을 일건서류와 함께송국되후 십여개월동안 아무소식이어든중 오는십구일에공판이개정되엿다고한다

十二歲小學生 牛車에轢死

정상이가련

【竹山】 안성군삼죽면진촌리(安城郡三竹面眞村里) 지갑봉(池甲鳳)의장자 명운(明雲)(一二)은 현재 그곳사립보흥학교사년생으로 지난십일오후다섯시경에 전긔학교에서 ... 모구지고개에서 우차(牛車)에 갈리여 무참히도 현장에서 참사하엿다 원인인즉 교장의심부름으로 장작을사다주고 우차를 타고오다가 떠러저서 그와가티 죽은것이라는데 급보를접한 삼죽경찰관주재소에서는 즉시공의 최창선(崔昌善)씨를 출장식혀검시케하고 당일에매장하엿다는바 그의부모들의 애통하는 정경은 참아볼수가업다고한다

市內에强力犯頻發 年末警戒를豫先着手

銀行會社의首腦者를招致하야警告 歲暮流行物、强迫紳士嚴戒

해마다 년말이라면 사고발생의 비상시─이라고해서 경찰은 특별히 년말경계의 기한을 정하고 십이월이십일부터 일한을 지는 시내각서의 번(番)과 비번(非番)경관을 총동원해서 주야경계를 비상경계를 하거니와 금년에는 여러가지로 가을부터 특별경계가 계속되엿든까닭에 경찰은 다소간 예년보다도 더욱 평온무사한 연말을마줄것이라고만 생각햇든 것이 웬걸 이예상과는 딴판으로 작금의 경성시내에는 강도、또는 대규모의 절도사건이 뒤를니어 생겨서 경찰의 간담을 써늘하게하고 잇슬뿐아니라 따라서 일반민심이 뒤숭숭하다고하야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연말경계는 물론 엄중하게거니와 이번날경계까지의 예비경계를 하려는데 특히 여러가지강력범(强力犯)의 방지와 또소위 거리의신사들의 금품강요등을 근절해서 명랑한년말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달말을 전후해서 시내각서에서 따로히 그관내의 은행회사 금융조합 대상점의 대표자를 모으고 야촌(野村)형사과장을 비롯하야 도형사과의 수뇌부가 직접참석하야 강력범예방과및 발생즉시의 처치방법에 대한 의논과 주의와 련락의도모를 하리라한다

土價의暴騰으로 自作農創定坐礁

西北道地方은如常進行되나 南道地方은大支障

자작농(自作農)창정계획은 땅갑시 올라가는바람에 따라서 재정난으로 축소될바께 업다고보이는데 이에하야 총독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지안코 본래 이사업이 도(道)를 주체로 한것이라는 견해에서 토지구입비용과 리자보조는 이미 정한대로하고 그실제의 운용은 각도의 재량에마껴버리기로 되엿다고한다 따라서 땅갑시 몹시 오른 남도와 중부는 기정방침보다 자작농설정이 축소될수바께업고 그러치아니한 북도와서도는 과히예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리라하나 대체로 십연도의 창정계획인 이천오백호 일천이백오십정보의 전부실현은 어려울모양이다 그러고 십년도설정의 토지구입자금은 내달일일에 박게되리라한다

紳士淑女賭博團

십팔일 오후아홉시경에 시내수은동(授恩洞)사십번지 차정순(車貞順)의집에서 부호의 애첩과 산파와 료리집녀주인등 녀

安昌浩氏慰安會 當局에서中止

【平壤支局電話】 삼사일에개최할 예정이든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씨 위안회는 금십팔일 당지 경찰로부터 준비위원들을 호출하야중지명령을 하엿다고 한다

渡金半指떠러트리고 鄕客을詐欺

危險한거리알부랑자

도금부치로 시골손을 속이는 알부랑자들─부내룡산서(龍山署)원이 십칠일 저녁여덜시반쯤되여 부외 아현리(阿峴里)백번지 근방을 순찰하든중 행동이괴이쩍은자한명을 붓잡어가지고 그서로 다려다가 엄중한 취조를 하엿든바 이자는 충남례산군대술면송석리(禮山郡大述面松石里) 태생으로 일정한주소와 일정한 직업이업시 떠도라다니는 유명한 알부랑자 김춘서(金春西)(三○)로서 지난 나흔날나제 유석환(尹錫煥)이라자와짜고 종로(鐘路)네거리에서 싸구려 도금가락지두개를 십전에사가지고 그것을미끼로 그길로 경성역에나가서 때마츰 개성(開城)쪽으로부터 드러오는 기차에서 장단군 군내면읍내리(長湍郡郡內面邑內里)오백륙십일번지 황용렬(黃龍烈)(三○)이란 어수룩한 청년이 나려서 자긔의처가인 봉래정(蓬萊町)사정목 백오십번지를 못찻고 어리둥절하는것을 보고 그의아프로가서 가장 은근한 태도를 보히다옵 자기들이 테러다줄터이니 따러오라하여 열로당토안흔 남산공원(南山公園)쪽으로 끌을고 가다가 남대문근처에 이르자마자 김가는 갑작이 땅에다가 미리준비해가젓든 가짜가락지두개를 떠러트리고 유가는이것을 주스는것처럼 꾸민후 이것은『우리세사람의 복이니 셋이서논하가저야만 될텐데 사람은셋 가락지는 두벌이니 고루난홀수업슨즉 황그대가 이것을 도맛고 그대의 가진돈이잇거든 그것과 바꾸자』해서 려비로 가지고왓든 사원십전을 몽땅빼아서 가지고는 두자가난호아먹은 사실이 드러낫다한다 그래서 그서에서는 이따위 못된버릇으로 어수구레한 시골사람들을 속혀먹는자들을 징계키위하여 엄중한처벌을 할터인데 유서화만은 도망해바렷슴으로 지금 엄사하는중이라한다

芙江에强盜

【芙江支局特電】 십팔일 오전두시쯤해서 충북청주군 현도면죽전리(淸州郡賢都面竹田里)오영달(吳永達)의양조장에 식도를 가진 복면강도가 침입하야 돈을 내라고협박하는것을 주인오영달이 달려드러 격투를하다가 오영달은 얼골에 부상을하고 범인은 그대로 도망하엿다 보고를 바든 즉전주재소에서는 범인의 행방을 엄탐중이다

我田引水問題의 翁婿間에珍訴訟

【淸州】 한발로인하야 물싸홈끗헤생긴 장인과사위간의 소송이 이러낫다─괴산군 청천면 후평리(槐山郡靑川面後坪里) 박식(朴植)(五○)이란 로인은 금년팔월오일경 때마침 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야 모름싱은논(畓)바닥이 말음으로 동면동리에사는 바로인의 사위되는 김영(金永)이가 소작하는논에 물이잇슴을보고 자긔논으로 물을대는 판에 이것을본 사위는분이날대로나서 장인되는 박로인을 물구덩이에 자빠넛코 따리며발길노 차는등 대난타를 가하엿다고하여 박로인은 중상을당하고 분함을참지못하야 진단서를 첨부한 상해고소를 소할괴산경찰서에 제긔한결과 그사위는 상해죄로벌금십원의 처분을바더 형사문제는이것으로 일단락을 매젓스나 장인되는 박로인은그래도 분이풀리지 아니하여던지 이번는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손해금삼십사원이라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금번 청주지청민사부에 제긔하야 근일중 그의 제일회구두변론이 개정되리라는데 장인과 사위간의 소송이만치 큰이야기거리가 되여잇다

江陵에大火

石油倉庫引火가危險

【江陵支局特電】 십팔일 오후여덜시반쯤되여 강릉읍(江陵邑)안목(安木) 동척회사(東拓會社)사무소부근에서 불이이러나서 인가두채를 모다 태워바리고 아직도 맹렬하게 인가와 및창고에 옴거부러라는중인데 이상래로 간다면 안목항(港)은 전멸에 갓가올다 읍내소방대에서도 총동원하야 현장에 출동하얏스나 전긔 창고내에는 석유(石油)휘발유(揮發油)등이 싸혀잇서 만약 여긔에 연화되여 기름속이 폭발되는때에는 비참한결과에 날것이라고 판측된다 그리고 인명에도 상당한 피해가 잇는듯하나 연소중임으로 아즉알수업다(午後九時半電話)

運動競技

梨專主催·本社後援 女子籠球對陣決定

廿三日午後二時半開幕

저무러가는 一九三五年 우리女子스포─之界의 豪華幕인 梨花女子專門學校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二回全朝鮮女子中等校籠球大會는 압흐로 四日間을남기고 戰雲이 바야흐로 무르녹아가고잇다 母校의名譽를 두어개에 걸머진女丈夫들은 이날을마지하야 猛進하는 朝鮮女性의 氣象을 가장 힘잇고 活潑하게 發揮할것이며 이날의出戰팀은 昨報한바와갓거니와 昨十八日午後四時부터 梨專體育館內에서 同大會關係者立會下에 對戰을다음과가티 抽籤決定하엿다 그리고 競技時間은 二十三日은 豫定보다당기어 後二時三十分에入場式을行하고 同二時四十五分부터 開戰케되엿다

- 宣川保聖
- 梨花女高 (2.45)
- 培花女高
- 咸興永生 (4.15)
- 好壽敦女 (3.30)
- (5.30)

全日本籠球 朝鮮豫選經過

普專軍이先勝

明春一月二日부터 東京에서열릴 世界籠球의豫選兼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 朝鮮豫選會第一日의 高麗對普專戰은 十八日午後三時四十三分부터 鐘路青年會後庭 『코─트』에서열린바 前半戰에잇서 普專軍 繼續得點하야 三十一對十七로 『리─드』하엿다 後半戰에 드러가 高麗追及猛烈하엿스나 効업시 二十九對十四 結局六十對三十一로 普專軍先勝하엿다(개인四十分間)

普專 60 (29 31 / 14 17) 31 高麗

反前後【普專】		【高麗】前後反
1 16 9 申光浩 / 2 8 11 崔海龍	F	呂東煥 1 4 1 / 尹正燮 8 4 0
3 2 0 金致雲	C	金在春 6 0 2
0 4 3 辛在瀧 / 0 0 6 李文鎬 / 0 1 0 洪憲錫	G	安台慶 0 0 2 / 朴泳洙 0 4 2 / 宋基宇 0 2 0 / 金化泳 2 0 0
6 31 29		17 14 7

××中學部·青年部 籠球聯盟戰第九日××

飜覆無常한白熱戰!

K籠이籠友를擊破 儆新、養正에게惜敗

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 第九回籠球聯盟戰 第九日은 十八日午後六時半부터 鐘路青年會體育館에서 青學對道商戰으로열리어 青學東硏부터 好調로 十八對十二、後半에三十對九로勝捷하얏스며 第二次로 養正對儆新戰은 儆新軍一時優勢를 보이여 養正苦戰에빠지엇다가 最後攻擊에奏効하야 得勝하엿다 그리하야 青學과養正이 七割五分의 同率로 第二位에 列하고잇스며 青年團의 籠友對K籠戰은 K籠軍奮戰끄테 勝捷하엿다

青學 48 (30 18 / 9 12) 21 道商

中學第一部‖道商對青學戰 十八日午後六時半 開始 審判李惠逢 張權兩氏(개인二十分間)

反前後【青學】		【道商】前後反
1 8 4 兪仁濬 / 2 10 10 徐廷釗	F	李相勛 4 4 1 / 孫光善 0 0 0 / 裴炳墉 0 0 0
1 0 4 權重燮 / 1 0 0 李應斌	C	柳永一 0 2 1 / 韓在洙 1 0 0
0 0 6 金俊奉 / 2 0 6 李秦燮	G	閔永得 6 2 1 / 韓龍雲 2 1 0
7 18 30		12 9 3

養正 43 (29 14 / 14 11) 25 儆新

中學第一部‖養正對儆新戰 同日午後七時二十分開始 審判宋基宇 金化泳兩氏(개인二十分間)

反前後【養正】		【儆新】前後反
0 5 2 白南鎭 / 0 6 5 鄭鎭燮	F	崔志善 4 0 1 / 尹龍鎭 3 0 3
1 1 4 申宗淳 / 1 0 11 張聖鎔	C	蔡允錫 6 6 2 / 秋尙輝 0 0 0
2 2 4 方元淳 / 0 0 3 韓世一	G	李壽洪 2 0 2 / 鄭東湊 0 2 0 / 梁在昌 0 2 3
4 14 29		15 10 11

K籠 34 (8 15 / 21 11) 32 籠友

青年團‖K籠對籠友戰 同日午後八時十分開始 審判李惠遂、李惠逢兩氏(개인二十分間)

反前後【K籠】		【籠友】前後反
3 8 4 金鍾勳 / 1 6 10 韓載午	F	金命謙 2 0 4 / 鄭東鎭 1 6 3
0 9 2 南基燮	C	金鍾元 5 4 2
3 2 2 金鳳官 / 2 0 0 李長淵	G	申海龍 3 1 1 / 金東植 0 0 1
9 25 18		11 21 13

第九日戰率

【中學第一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徽文	4	4	0	1.000
2	養正	4	3	1	0.750
2	青學	4	3	1	0.750
3	儆新	5	3	2	0.600
4	中東	4	2	2	0.500
5	一高	4	1	3	0.250
6	道商	4	0	4	0.000
6	協成	3	0	3	0.000

【中學第二部】

順位		試	勝	敗	率
1	普成	2	2	0	1.000
1	京農	1	1	0	1.000
2	培材	1	0	1	0.000
2	中央	2	0	2	0.000

【青年部】

順位		試	勝	敗	率
1	高麗	4	4	0	1.000
1	延專	4	4	0	1.000
1	普專	3	3	0	1.000
2	法專	3	1	2	0.333
3	籠友	4	1	3	0.250
3	世專	4	1	3	0.250
5	K籠	5	1	4	0.200
6	三角	3	0	3	0.000

撫順滿俱러비大敗 對朝鮮鐵道戰

全滿의覇者 撫順滿俱對朝鮮鐵道의 러비戰은 十八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鐵氏審判、滿俱先蹴으로開始한바 朝鐵은 終始滿俱를壓倒하야 滿俱最後의五分에 一트라이를不得 結局五五─八로 朝鐵大勝하엿다

朝鐵 55 (29 26 / 8 0) 8 滿俱

東京大學籠球리─그

【東京電話】(同通) 關東大學籠球리─그戰第一次 早大對立敎、慶應對商大의二回戰은 十八日午後二時부터 外苑코─트에서擧行한바 成績은다음과갓다

早大 26 (12 14 / 18 5) 23 立敎

慶應 35 (18 17 / 16 10) 26 商大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青主催 第九回籠球聯盟戰 第十日 協成對中東(午後六時半) 京農對培材(七時二十分) 延專對籠友(八時十分) 法專對高麗(九時) 三角對普專(九時五十分)

앞은곳에발느면곳낫는

本劑는淸潔한백색크림이니 냄새도좃코 발는후옷에뭇거나모양이흉치안코 만效과가곳낫하남으로 훌륭한칭찬을밧고잇슴니다。

皮膚表面에 아무고장이업고 근육심부와관절이 쑤시고 색기며 결니고압픈 神經痛류─마지스 관절염의疼痛에는 여러가지천문적수단을 쓰기전에 먼저「사로메지─루」를발느시면 그럿케심하든고통이 곳개이고 밤에 잠을잘주무시게됨니다。

피곤함을곳회복식힘

職務過勞나 運動競技 혹은먼길을걸으신뒤에 몸시 피곤하게된근육에「사로메지─루」를 발느시면 쉬이는동안 또는 주무시는동안에 모든炎症과鬱血을삭게하고 피곤함을一掃식혀서 원기잇게 몸을회복식혀줌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어느가정에도 한개식준비하시사 무슨돌변사가난때 전문가의손을빌때까지에 응급치료에사용하야주시기바람니다。즉 두통…현기…치통…견비중…담결니는데…허리와다리압흔데…배압흔데…평지낙상…멍이든곳이나 상인곳에…감기에걸녀목이압흘때…피부가가려운병에…빈대 벼룩의예방에 사용하시면 무슨약보다도 적확한효과가잇슴니다。

陸軍承認藥

신경통·견비중 류─마지스·담 절니는데·두통 치통·인후통에 타복상·근육통 피로회복에…

十五錢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 販賣합니다

サロメチール

사 로 메 치 ─ 루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8─Ⅱ─20

勞賃引下에反對코 三和고무女工盟罷

"高物價時代에賃金引下不可" 九十餘女工結束鞏固

【木浦】목포삼화고무회사 목포공장(三和護謨會社木浦工場)에서는 공장수선으로 림시휴업을하엿다가 지난 십사일아침에 다시기계를돌리고 긔전을 틀어직공들을 재촉하엿는바 녀직공구십사명은 결속하야 돌연 동맹파업(同盟罷業)을 단행하고공장측과 대립이 되어 쌍방이다강경하게 버틔고잇다한다 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팔일에 임금인상을 요구하야 파업을 하엿다가 별로신통한 결과를 못보고 해결을 한녀직공들은 항상 미타한감정이잇서 오든중 이번에는 공장측이 경비절약을위하야 임금의 일부인하를 발표하엿다는데 직공들은 백물이 등귀한 이때에 임금이상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도로혀임금인하는 절대불가하다하야 끗까지 대항할결심을 보이고잇스며 공장측의 말은 그공장에서 제조하는 고무신이 유종인데 그중에서 별녀(別女)일족에 이전오리하든것을 이전으로인하하고 일전삼리식하든 소、두(小、豆)를 각각일전으로 인하한리유는 조선가지에잇는 삼화고무공장의 임금을 통일하는데 긔정방침이라하야 또한 강경한 태도를보임으로 원만한해결은 보기어렵다한다

無産兒童爲하야 振興學院設置

【草溪】경남합천군 초계면 사무소에서는 농한긔를 리용하야 배움에주린 무산아동들을 위하야 진흥학원(振興學院)을 설치코저 일전부터 준비에 분망중이든바 모든준비가 완성되엿슴으로 오는이십일에 개원키로되얏다하며 배움에목말은 일상생활에 피로한 한글 산술 국어등이라고한다

線路通行者에게 奇怪!私刑을敢行

돌추기와 不動姿勢로罰씌워 梧根場驛工夫에怨聲

【淸州】인권린유의사형(私刑)을 감행하는 선로공부——청주군북일면정상리(淸州郡北一面井上里)에 주소를두고 현재충북선오근장역(忠北線梧根場驛)에 선로공부로잇는 오봉운(吳不出)(假名)외오명은 동역부근선로통행자를 발견하시는 철도영업법위반이란 것을 유일한 무긔로 삼고 통행자에게 돌추이는(石抽)작업을 세시간이상식히고 그래도 부족함이잇스면 두시간이상 부동자세(不動姿勢)를 식혀 선로내에 세워두엇다가 돌려보낸다하야 이가튼 곤욕을 당한사람도 상당히만타하며 최근에도 청주읍 석교정(淸州邑石橋町) 박모(朴某)가 자전차를 끌고 동선로를 통행중 전긔 오모에게 발견되야 자전차의 감찰(自轉車鑑札)을 파손하는등 전긔와가튼 사형을 당하고 도라왓다는바 피해자는 방금 고소를 준비중이라하며 이가튼 불법행동을 감행하는 오모에대한 조치측의감독당국들은에대하야 반성이잇기를 촉망한다고한다

脅迫常習漢逐出

【舍人】평안남도순천군사인면(順川郡舍人面)청옥리(靑玉里)에는 지난팔월경부터 오치순(吳致淳)이란자가 와서 동리일오삼번지에 거주를 정하고잇는데그는 이래 무직으로 동리의 청년들을 모화가지고 도박을하여 금전사취를 하는일방 량민들을 협박하야 생계를 하든바 지난사일경역시 이웃에사는 황룡덕(黃龍德)이란 사람에게가서 생활비 입백원을주지안흐면 당장타살하겟다고 위협함으로 이에 항전타가 전긔 오(吳)의 무리한행동에 분개하여 사인주재소에 고소를제긔하엿든바 동주재소에서는 즉시체포하여 이래취조하든중 수입전 장래를 엄중설유하고 전긔 옥천리에서 축출명령을하엿다한다

面吏員을中心한 紳士賭博團 警察에被檢嚴調

【安東】여사이민작추수간이라는전제하에 도시 촌락을 물론하고 공긔가 숙청한이때에 경북의성군 귀천면위성동(渭城洞)에서는 지난십오일 오전령시경에 평소에도 만흔주목을 가지고잇든 모면회계원 박모(朴某)와기타 리삼택(李三澤) 권춘달(權春達)(모다假名)등의 일당이 대도박장을 여럿든바 때마침야순하든 동면경찰서원에게 발각되여 방금엄중한 취조를진행중이라는데 신분과 직무가 직무인만큼 사건의해결을 입반은터 옥주목중이라고한다

被檢四個月半만에 朴泳俊等五名

十五日泗川署에서 釋放

【泗川】지난 칠월사일에 사천경찰서(泗川警察署)에서는 서장이하 수십명서원이 총동원하여 진주、사천、고성、하동(晋州、泗川、固城、河東)등지를 통하는자동차는 모조리 교통차단을 식히고 삼천포(三千浦)를 급거출동하여 선두로 삼천포소비조합(消費組合)을 습격하고 조합간부 박영수、리민호、박이긔(朴永秀、李敏鎬、朴二基) 본사삼천포지국장 박영준(朴泳俊)양복점업、배장영(裵章榮) 재목업、박대갑(朴大甲)、최효근(崔孝根)등 십수명을 총검거하여 사천경찰서로 압래 인치하고 사건내용은 극비밀에부치고 도경찰부에서 직접출장하야 엄중한취조를하다가 칠월이십오일에 박영준、최효근、배장영、박대홍등네명은 도경찰부로 이송되고 남어지딸명중 박대갑 전한영(朴大甲、鄭漢永)듣명은 당시무사석방되엿스나、박영수등 여섯명은 여전이 사천경찰서에서 취조를당하든바 십일월초이일에김긔만(金基滿)황달용(黃達龍)등 이명을 제외하고 그이틀날이십일에는 제일차로 압송되여취조를받든 박영준(朴泳俊)박대준(朴大俊)등이명을 도경찰부에서 도로사천서로 입송식혀 그간엄중한 취조를 밧게되여다 그리하야 적거만사개월반을안이나 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조를 받든 소비조합간부 박영수、리민호、박이긔、박종업등 네명을 비롯하야 박영준은 십일월십오일 오전열한시경에 도경찰부서입려된 박대준(朴大俊)만 남겨두고 전부 석방되엿섯는데 비교적 그들가장에는 별로이상은 업섯다한다

被疑朴大俊은 「朝共協會」關係者

별항보도한 지난 십일월 삼일에 경남도 경찰부(慶南道警察部) 사천경찰서(泗川警察署)에 압래되여 방금 엄중한 취조를받고잇는 박대준(朴大俊)은 지금부터 사변전인소화칠년 륙월경에 대구(大邱)를중심하야 조선공산당 재건협회(朝鮮共産黨再建協會)사건과 당시사천포 적색독서회(三千浦赤色讀書會) 사건등에 갈련되어ㄴ에 당시각경찰의 어마어마한 대검거선풍과 삼엄한 경계망을 용케도 경찰의 눈을 교묘히피하야 이래 망명하엿든 것인데 그가 망명한 사개년만인 지난 십일월십사일에 경남도경찰부 형사의 손에 드듸어 체포되지 경남각지에서 검거선풍이 불을 되것인듯 하다한다 그리하야 적기 근사오개월간이나 경남도 경찰부에서 엄중취조를 받다가 지난 십일월십사일경 사천경찰서로 압송되여 아직 취조를 밧하든중이다

曙光비친淸醒學院

校舍新築、私校認可를申請 明日의興旺을期待

【鏡城】함북독진(咸北獨津)청성학원은 사십년이란 오랜 력사를가진어민자제의 유일무이한 교육긔관으로 지난봄부터 여름동안 청동민의 동의과 오천여원의공비로 교사를 신축하야 면목일신되어 근대공립학교에 지지안을 정도에 달하엿슴으로 독진에잇서는 적지안흔 교육적 판심을 긔거하고잇는데 일로발전의 동학원은 간부제씨의 렬심적활동에 나이 사립학교 긔본재산적립을 완료하고 목하 당국에신청중이라는데 불원에 인가가나오리라하야 일반의 긔대가크다고한다

對岸重要地에 特別警備陣

軍用「추럭」等配置計畫

【安東】만주국군과 관동군의대토벌 개시로인하야 각종匪賊이 할남도대안으로 이동하게됨에 할남도 국경은 극도의불안상태에 이르고잇다한은 루보한바어니와 이로인하야 목하 할남도에서는 국경경비에 전력을 다하고잇는 중인데 이에대하여 할남 도경찰부장의 말을들으면 위선 대안(對岸) 주요지대에 전부 특별경비대를 설치하는동시 군용 『트럭』 조명등(照明燈) 긔관총(機關銃) 뢰명탄(雷明彈)등을 국경각주재소에 무루히 비치할계획이며 근일중 국경각경찰서장을 초치하여 이에대한구체적 타합을 하리라고하는데 문자그대로의 철옹성을 쌓을것이라고한다

리다가 당일은 동대회를 축복하는듯이 천긔가 청쾌하고 긔후도비교적 따뜻하야 일반관람객도 예상외로 다수참집하야서 대성황을일우엇다 당일의 인긔의 초점이 되어잇든 각정대항리레와 각상점대항리—레에는 이를후원하는 일반관람객의박수소래가 넘으운동장을 뒤집을듯하얏는데 우승한정과 상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優勝町 濟州町
▲優勝商店 釜山洋品店

釜山商工運動 大盛況裡終了

【釜山】부산체육회 주최의 부산상공대운동회는 예정대로 지난 십칠일오전 구시반부터 부내대신정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얏는데 동회장 김준원(金俊源)씨의 개회사와 충무천영호(田暎昊)씨의 주의사와 선수대표의 선서가 잇슨뒤 경기를시작하얏다 수일래로 비바람이내

鰮魚群의再襲來

明太의繼續豐漁와함께 咸南沿岸의大活況

【新昌】금년도의 함남연안 일대의 온어어획은 실로 대경이적 수짜를 나타내여 미증유의 대황긔를 띄이든 동해연안에는 거월중경 풍종이후로 온어가 전연 잡히지안허 온어군(鰮魚群)의 남하를 전하여오든바 지난 십삼일경부터 온어가 다시 잡히기 시작하여 작금 사회간 중태자망 준비를 하든 온어선이 전부 온어잡이로 재출발하여 방금 계속어획중으로 연안일대는 명태어업과 함께 보경지 대활긔를 띄이고 잇다 한다

留橋改築實現!

◇……總工事費七千餘圓으로 不遠間工事에看手

【開城】개풍군 남면(開豊郡南面)에 다년간 현안중에잇던류교개축문제는 공비 칠천오백원으로불원간 실현되리라는데 동교는 토성(土城)으로부터 창릉포(昌陵浦)에 이르는 교통상대단히 중요한곳이라한다

獨津築港陳情

【鏡城】북조선 동해안은 국제항라진、청진(羅津、淸津)의 출현에따라 해륙교통이 자연다번하게되여 련접한 무명무명의소항에 이르기까지 시긔적시설이점차가속도로 요망하게되엿다 전긔신흥항과 압호로 어대진(漁大津)의 빈번한·선로에 개재되여 지리적요충에잇는 소독진항(小獨津港)은 근래 물의의 풍랑에피난선이 요새지로 만흔어선이 거래하는데 어항의 불비로 잔닙한 어민의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일이만타하야 지원주민동중심으로 그수축을 달성키위하야 다년 활동을계속 하엿스나 도예산에 륙산이되여 두룡거리로남어잇는바 얼마전에 총독부에서 식산국장이 시찰로 래진키에 량해를 엇게되여 일루의희망을가지고 전어민이 련서로도예산 편성긔전부터 긔성회위원들이 적극활동중이라는데 어촌피폐의차제에 어항수축의시급을갈망하는 소리가 놉다고한다

文盲退治目的으로 八十餘講習開講

居昌郡當局에서計畫

【居昌】경남거창군(居昌郡)에서는 다변속안이든 농민의 문맹퇴치운동을 금년부터 삼개년간 계속사업 으로 전군각면각배에 동리에 소위농민도장(農民道場)을 건설하고 금년도에만 백여동리에 팔십여개소의 농민강습회를 근근개최키로 되엿다는바 이제 자세한내용을들어보면 개소수용량이 약이백명으로 주녀야남별(夜男部別)로 일입부터 일제히 개강하야 명삼월녀밀까지 그와료를 보리라는데 이를 전제한지도생강습회를 지난 십사일부터 일주일간 거창농업보습학교(居昌農業補習學校)에서 각면청년 팔십명의회합하야 강습을 진행중이라한다

外貴面婦人會서 敬老會를開催

【滿浦】평북강계군 외귀면 부인회(江界郡外貴面婦人會)는 작년십일월에 창립되엿다는데 만일년간에 회원 일동의 열심으로 공동작포(共同作圃)를 설치하야 일주년에 현금사백삼십사원 오십전의 저금을 만들엇다·동회에서는 창립긔념으로 지난십삼일에 칠십세이상 남녀로인 이십여명을 외귀공보교실(外貴公普校室)에 초대하고 한사람압헤수저(手箸)일부식 진정하엿다는데 그중년령 최고위가 팔십칠세라하며 대성황으로 긔녀식을마치엇다한다

寫眞說明

上은外貴面婦人會員 下는招待를밧는七十以上男女老人

安州高普校 寄附金逐日遝至

【安州】평남안주읍에 위치를정한 안주고등보통학교는 명춘개교를 압두고 지방유지로 부터 긔부금이 매일답지한다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가타다한다

▲金泰華一〇〇〇圓 ▲金鎭發七〇〇圓 ▲金速鴻四〇〇圓 ▲金相殷五〇〇圓 ▲崔用德三五〇圓 ▲金駿善三五〇圓 ▲金君澤二五〇圓 ▲李如岡一五〇圓 ▲金鎭德一〇〇圓 ▲金榮淳一〇〇 ▲高明福一〇〇圓 ▲金文燦一〇〇 ▲金一精一〇〇圓 ▲鄭然肇五〇圓 ▲李龍翊五〇圓 ▲李永權五〇圓 ▲姜仁國三〇圓 ▲田德弘三〇圓 ▲車化俊三〇圓 ▲李東升一五圓 ▲金相瑾一五圓 ▲崔東獻一〇圓

화로불不注意로 慘!酌婦燒死

【開城】개성부내·만월정(滿月町)륙배오번지 리재동(李再同)의음식점에잇는 작부 정옥순(丁玉順)은 지난십륙일 오전이시경에 방이 치움으로 화로불을 피어놋코 잠을 이루엇든바 동오시경에 이불에 화로불이 부리서 마침내 무참히도 불에 타죽고 말엇다한다

第一回關西 少年少女雄辯大會

【古邑】정주고읍 체육회에서는 래십이월 칠일오후칠시에 관서소년소녀 현상웅변대회(關西少年少女懸賞雄辯大會)를 개최하라고 만반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연사의 자격은 십오세이하의 소년소녀라하며 연제는 수의이고 변론시간은 십분이내로 제한되여잇는데 뜻잇는 연사의 다수참가를 긔대하고잇다한다

大邱府共同墓地 移轉工事遂完了

大明洞은入葬拒絕

【大邱】대구부공동묘지 장소결정문제는 가는곳마다 주민의반대로 난산에난산을 거듭하여오다가 드듸어 달성군성서면(達城郡城西面)과 칠곡(漆谷)이개소에 결정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동안공사비오만오천원으로 착착공사를 진행시켜오든바 이제 성서면묘지 십일만평 칠곡묘지 십륙마평의 공사가완료되여 남신첩일에 죽본(竹本)부내무주임 위생주임 부의원오씨 민간오씨의 일행은 칠곡묘지를 시찰하고 왓는데 이두묘지 전부의 준비는 다 맛첫다는바 오래동안 말성이어든 대명동묘지(大明洞墓地)도 이제는 입장을 거절하기로되엿다한다

順天基靑聯合臨時總會

【舍人】평안남도 순천지방(順天地方) 각처에 널려잇는 장로교회(長老敎會)의 청년회(靑年會) 십여지회가 합동한 순천지경긔독청년련합면려회(順天地境基督靑年聯合勉勵會)에서는 오는이십일일 오후한시경 자산례배당(慈山禮拜堂)에서 림시총회를 개최한다는바 주요한결의건은 후탄면(厚灘面)일리 방면에 교회신설운동이라한다

婦人公論

★★十二月號★★好評物雲の如し★定價五〇錢★★

新貧之物語 杉山平助

實話特輯 女性の敵

女性の敵は男か女か將またそれ以外に潜むか——この五つの場合に社會の裏面の恐しさを見よ

【總批判】女性の戰術 金子しげ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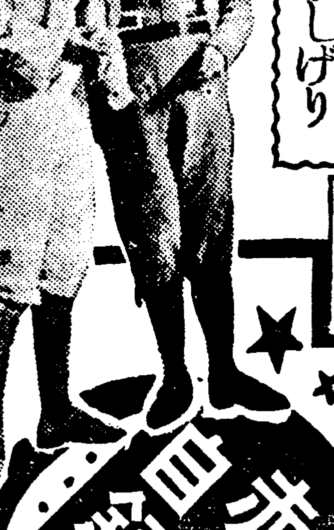
女性と政治運動・阿部眞之助
國際情報・清澤洌
經濟講話・小汀利得
女學校は出たけれど・麻生豊
女性列傳 樋口一葉 今井邦子
縫ひぐるみ人形の作り方 武井梅子
澁い鍋料理六種
美容師の實行して居る肌の手入れ 早見君子・芝山みよか・小柳波子・柳村マサジ・ミネ牛山
一九三五年映畫のベスト・テン
洋樂レコードのベスト・テン
議會と婦人團體・金子しげり
歐米映畫巡禮・川喜多かしこ
防寒用下着の作り方・ドラ勝本
萬能スポーツ服の作り方
モダン廢物利用四種
更年期の病氣・竹内茂代

好評渦卷くこの創作陣

惡魔の嫉妬 宮地嘉六
青空士官 吉川英治
霧を厭ふ女 白井喬二
金の鍵の匣 里見弴
虹の花 野上彌生子

年末お伽噺 めーるへんらんとん 年の暮、街の一隅にふと拾ふこの眞珠玉! 佐藤春夫・坪田譲治・井伏鱒二

懸賞當選小說 村の娘 飛彈高子



グラビヤ特輯 ターキーが舞臺に出る迄

うれし恥し新婚旅行スケッチ 新婚列車同乘記 松島蓁子

サトウ・ハチロー セピヤ・ピース

死の床に夫を捨てし人妻に罪ありやと叫ぶ親友の淚に濡れた手紙
この妻に罪ありや 塩月武彦

華々しき女子英學塾前校長たりし母に弊履の如く棄去られし子の叫び
冷酷なりし母よ歸れ 小倉ミチヨ

死刑の宣告を受けて悶々獄裡の月に訴へた心の動きを微妙につゝむ
長谷川繁が無罪になる迄 正岡いるる

吉井勇氏の再婚說とゝく子前夫人の更生秘話を語る消息通の物語
吉井勇氏の再婚說 よしゑ

かつて世の指彈を一身に浴びたとく子夫人の淚ぐましき更生の姿
今も昔も變らぬ私 とく子

伯爵令孃としての名譽と地位を捨てゝ一介の文學の徒に走るまで
伯爵家を追はれた私 寺下たゑ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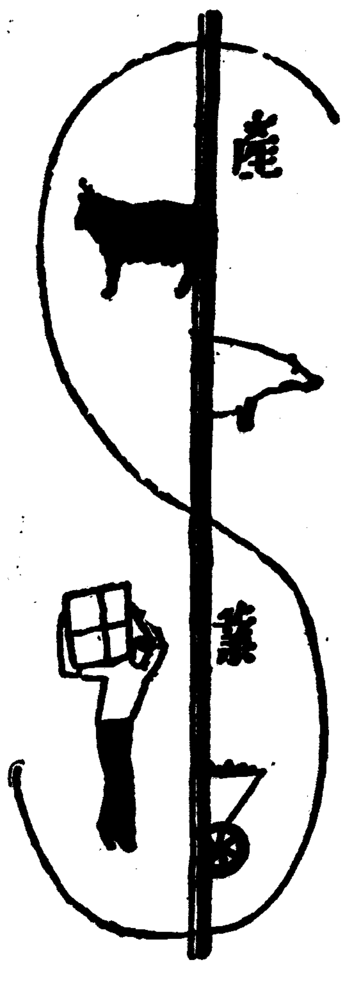
職業婦人の活き拔いてゆく道の厳しくつらい現狀!
職業婦人の荊棘の道 奧むめお

特輯 妊娠調節報告記 【批判】醫學博士 鈴木甚吉

美容に潜む危險 醫學博士 中村敏郎
愛妻家の一例(藝術深圖) 岸田國士
精神的若返り法・徳富蘇峰
先人を拜す・吉田絃二郎
子供は訴へる・百田宗治
嘉—子—自—叙—傳
趣味の年賀用木版の作り方
僕の頁・嶋中雄作
主婦の科學知識
十二月の趣味帖

愈々一九三五年も殘り少なになりました。皆樣への本年掉尾の贈り物として興味と實益に溢れるこの一冊を捧げます 本日こそ發賣日 即刻書店へ!!

東京・丸ビル 中央公論社



産組中央部를◇◇ 金聯에設置計畫
販賣購買等事業兼行

近年 當局의 方針에 依한 産業組合의 增設은 相當한 數에 達하야 現在 八十三組를 算하는바 當局의 豫測에 依하면 年內로 百組合을 突破하리라고 한다.

이에따라 各組合의 米、麥、大豆等의 穀物과 叺織物等의 販賣事業 肥料 農具 其他 生産原料等의 購買事業 利用事業等의 擴充을 보게되야 從來 過渡形態로 總督府商工課內에 産業組合係를 두엇만으로는 産業組合의 諸機能을 發揮할수업다고하야 最近 朝鮮도 日本內地의 産業組合制度에 準據하야 産業組合 中央部로 結成하려는 氣運이 濃厚하다.

이제 殖産當局의 意見을 들으면 金融組合聯合會內에 事業部를 特設하야 全朝鮮産業組合의 販賣、購買、利用 三事業을 集中統括하려는 案이 하나이오 그러치안코 産業組合獨自로의 中央機關을 樹立하자는 두案이 잇다고하는바 前者가 實現性이 잇다고한다.

그러고 現在 朝鮮의 産組는 信用事業을 全然하지 안코 金組라는 特殊機關이 잇스니만치 日本內地에서와가티 産組中央機關은 設置하지안코 金組聯合會에 그것을 代行시킬 計畫이라고 한다

처음이라한다

日本穀産에서 大豆加工計畫

關稅障壁으로因하야 原料難에 빠진 日本穀産會社에서는 關係方面으로 目下 總督府에 保稅工場設置를 要請中이며 이와倂行하야 大豆의 加工業經營을 計畫中이라는데 이는 朝鮮의 大豆를 原料로하야 食糧品工業化를 目標하고잇슴으로 工場의 增設을 計劃하고잇다한다

營口農村收穫 正租四萬五千石
勤儉貯蓄으로邁進

總督府의 營口安全農村은 所期의目的을 達하야 今秋第二年의 收穫을 맛치어 約一千分戶의農民이 正租 四萬五千石을 收穫하얏는바 이農作에 際하야 一層 堅實한 基礎를 싸코저 同農村管理部에서는 收穫正租中에서 例年의 種正租及 祭祀 又는 自家用으로 最小限度의 數量을 除하고 他全部의 正租를 農務係 聯合會에 預托하고 또 共同販賣의 便宜를 取하야 好成績을 示하고잇다 그리고 그 賣上金은 金融會에 預入하야 一切의 經費를 節約하고 貯蓄하기로되여 去二日 全村代表者會議에서 決議하엿다는旨 總督府外事課에 報告가 잇섯다

北朝鮮馬鈴薯 工業化調査
咸南北道에調査通牒

北朝鮮의 馬鈴薯澱粉工業에 對해서는 理硏의 日本마네사이드工業의 排熱利用에 依한 計畫도 잇스나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此等 工業化의 基礎資料로 最近 咸南北兩道에 馬鈴薯에 對하야

一、生産狀況並 消化狀況
二、咸南新興郡東上面産業組合에서 實施中인 澱粉製造의 調査
三、大阪某澱粉會社의 事業失敗에 對한 調査
四、今後의 增産狀況

의 各項의 調査를 通牒하는바 잇섯다

軍馬買上

今年度 朝鮮內軍馬購買는 過般 關谷牧場 及 京城競馬場에서 行하얏는바 關谷牧場에서는 同牧場의것 六頭 軍馬로 買上되엇는데 그中 二歲牡馬勝英號가 最高로 一千圓이엇다 또京城競馬場에서는 府內에서 八頭 高陽郡에서 三頭 合計十一頭인데 年齡은 五才乃至七才로 價格은 最高四百七十圓 最低三百五十圓이엇다

今年慶南道의 海苔發育이良好
今月末新品出廻豫想

【釜山】慶南海苔의 篊竹建立은 洛東江口 女竹 廿四萬二千五百本 蟾津江口 眞竹廿四萬二千五百本 山竹株立 一千七百五十三萬四千本 南海篊洪五百柵 浮洪四百柵 統營 泗川 浮洪百柵으로 今月末頃부터 新品이 出廻할터이라 하며 現在의 發育成績으로 보아서는 今年度의 總生産高은 約廿八萬圓을 突破하리라고한다

蜜柑販路增大로 當局의統制要望

【東京電話聯合】北米行 蜜柑의 輸出은 日本柑橘聯合會나 輸出組合이나 그配當五十萬箱式의 輸出이 念慮되고잇섯스나 日本柑橘聯合會는 十九日까지에 四十二萬箱을 搬出하고 殘部八萬箱도 來卅八日의 便船으로 發送할豫定임으로 輸出組合側도 來月初旬까지에는 五十萬箱全部의 輸出을 完了할터이다 그리고 今年度蜜柑輸出은 昨年에 比하야 增加의 趨勢에잇서北米의 賣價도 比較的好調를示하야 日本産蜜柑의 新販路獲得도 着着進하고잇슴으로 蜜柑輸出의 將來에對하야 當局의輸出統制의 好指導가 要望되고잇다

北朝鮮緬羊을 原料로授産場設置
홈스펀을生産計畫

敦賀町長森本一雄氏는 北日本과 北朝鮮連絡의 重要性에 鑑하야 去九日羅津開港式에 臨하야 牛島內務局長과 同道로 北朝鮮地方을 視察中 總督府의 南棉北羊에 共鳴을 하고 北朝鮮의 緬羊毛 原料로 敦賀에 授産場을 新設하고 홈스펀 生産을 企圖하야 十八日 入京 總督府를 訪問하야 右計畫을 報告 하얏는데 總督府에서도 이를 後援하야日本海를 橫斷하는 産業의 握手로 日本內地에서 北朝鮮緬羊을 原料로하는 工場은 이것이

平北定州苹果 滿洲에大量輸出
價額이一萬二千餘圓

【新義州】滿洲各地에 見本市가잇슨以後 平北定州苹果는 斷然聲價를 올리엇는데 各産業課의積極的斡旋에依하야 十六日 朝鮮貿易協會 新京出張所로부터 産業課에『國光』六車 四千二百箱을 一萬二千餘圓에 注文하여왓슴으로産業課에서는 速히 出荷하라고 定州果樹組合에 通知하엿는바 이것이 平北苹果로서는 처음으로 滿洲多量進出이어서 今後의 躍進이 期待된다고한다

金組 借換貸出의 回收가 顯著하야 九月末의 組合貸出殘額은 三月末에 比하면約百萬圓의 減인 一千百三十八萬八千圓으로되엇고 此期間內의 貸出二百五十萬圓이잇서 實際的農家負債의 償還이 結局 右合計約三百萬圓인바 今年度에는 農家의 高利債는 著減하리라고 期待된다

高利債一億圓
그四分一을整理

朝鮮의高利債整理는 昭和八年의 全朝鮮農家의 負債總額 二億五千萬圓으로 推定하고 此中年一割五分以上의 高利六千萬圓을 對象으로 政府로부터 低資의補給을 仰하야 八年十一月부터 實施하얏는데 十年三月의 此整理狀況은 整理總額一千六百十八萬七千圓에 達하는데 金組資金貸出에 依하는것 一千二百二十六萬九千圓 自己資金百六萬三千圓 勸奬節下 二百八十五萬四千圓으로 總額의 四分一의 整理完了를 보앗다 그리고繼續하야 今年도 二百五十萬圓의 低資로借替進捗中인바 最近의 傾向으로

貯油義務補償 그原則이確立

【東京電話聯通】石油業法制定에 依하야 六個月分의 貯油義務를 負擔하게되엿데 對하야 國策의 犧牲이라고는할지나 如斯한 多額의 義務를 石油會社에 負擔식힘은 根本的으로 無理가잇다는 非難이잇슴에 鑑하야 商工省은 關係各省과 協議한 結果 去十月一日부터 實施될 豫定이든 貯油義務開始期를 延期하는同時에 減少等의 諸費用에 對하야 補償하기로 되어 總額約四百萬圓을 明年度 豫算에 要求中이든바 十四日의 大藏省議에서 二百七十萬圓으로 削除承認되엇다 即 이補償에 關한 商工省側의 要求는 六個月分의 貯油에 對하야 一個年分의 諸費用의 半額을 國庫로부터 補償하라는것이엇는데 大藏省의 査定에서 相當한 削減을 受할것이다 따라 商工省側은 右査定을 그대로 承認할런지 엇덜런지에 對해서는 今後다시 協議할려이나 이로 貯油義務의 國庫補償原則이 確立되리임으로 이 問題도 이로 一段落을 告한것이라고할수잇다

漁業稅改正 原案은完了

地方稅制整理의 一環인 漁業稅改正은 水産課에서 原案을 硏究하야 이지음 大體 集計를 맛치엇는데 改正漁業稅金은 二十九項으로 分하야 從前의 負擔不均衡 漁撈技術時代無視의 不合理한것에서 漁具別을 비롯하야 負擔의均衡에 重點을두고 特히 道知事의 裁定으로 擔稅能力이업는者의 免稅等 新途를 열기로되엇다

撫順炭販組의 硫安取扱에疑義
法人格을不備함으로

滿化硫安의 朝鮮內配給은 農會에 特約賣込外 撫順炭販賣組合의 손을 通하야 一般으로 配給計畫이 잇섯스나 이는이즈음朝鮮肥料取締規則에 依하야 法規上 疑義를 生하얏다 撫順炭販賣組合은 法規上의 法人格을備치안홈으로 肥料輸內者로서의營業認可에잇서 問題가잇기때문이다

홈스펀製品의 賣行頗良好
供給不足의狀態

홈스펀의 製織은 當局의 指導奬勵로 相當한發展을보아 好個의 副業으로되엇는데 그販賣에對해서는 總督府農政課에서도極力斡旋하고잇는바 最近에는 供給不足의 觀을 呈하야 製品은 잘팔리는터로이대로 나가면製品만 改良하면 이商品化는 當初念慮한것과가티 그리 어려운問題가 아니라고 當局에서는 樂觀하고잇다

肥資貸出 方法을改正

肥料資金은 今年度로부터 朝鮮農會가 共同購入을 하기로되야 그貸付方法의 改訂에對하야도目下硏究中인데 大體 다음과가티決定할터이다

一、殖銀、東拓에서 新規資金을 一時 道農會에 六分가량의利率로貸付

一、道農會는 右資金을 朝鮮農會에 提供하야 朝鮮農會의共同購入資金으로함

一、그뒤 金融業者는 農民에低利資金을 從來대로 貸付하고 道農會는 그것을 回收하야殖銀、東拓償還、即이러케해서共同購入을 圓滑케하라는것이다

그러고 朝鮮農會의 共同配合所建設資金三十六萬圓은 殖銀、東

更生水組査定
今月末에終了

更生水利組合의 今年度 正租價標準은 仁川米檢査正租七錢三厘로 決定하야 目下 이것을基準으로 各組合의 諸經費賦課額을査定中인데 西北朝鮮은 이미 賦課額을 決定하고 中部朝鮮은 組合의 賦課額도 今月二十四、五日頃까지 決定할터이다 그런데 各組合의 賦課額에 不足되는것은 總督府補助豫算七十萬圓으로 이것을 補助하기로되엇는데 補助할 組合은 米價高로 意外로적고 積立金은 豫定보다 만허서 四十萬圓가량으로 될 모양이다

質疑
重複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僚하게

問 家庭副業으로 編結製造를 해보려고 하옵는데 朝鮮內나 大阪等地에 編結用空機이나 空機을 製造販賣하는 工場이나 商店을 下敎하야주시오 (沙里院一讀者)

答 釜山府本町一丁目 東洋製綿株式會社出張所

問 本人이 來年부터 麻絲製造業을 經營코저하오니 左記를 詳答하시옵소서
一、麻絲製造機械販賣所住所及一臺價格
二、麻絲製造의 見習難易
三、太田苧麻工場設立時期
四、苧麻種의販路를敎示하옵소서 (晉州一讀者)

答 一、麻絲紡織機는 一臺數萬圓임으로 小規模로는안됩니다
二、朝鮮內에서는不可能
三、太田의製紡工場은目下計畫中
四、苧麻種는 京城서는販賣取扱者가업습니다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朝鮮貯蓄銀行

京城支店銀行團
第一銀行
安田銀行
十八銀行
三和銀行

閔奎植

成樂憲

窒素肥料販賣株式會社
鄭泰述

朝鮮製錬株式會社